

# 미들컨트리공공도서관



글 | 이 용 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미국 롱아일랜드대학교 문헌정보대학원 방문교수

lyj5384@pusa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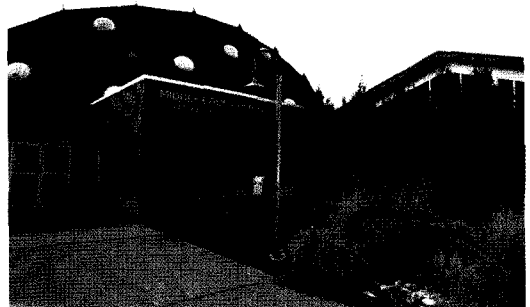
사람들이 꿈꾸는 도서관은 어떤 것일까? 어떠한 품속과 같은 곳? 그곳에서 노닐 수 있는 곳? 갈 때마다 좋은 곳? 매일 새로운 곳? 자주 가고 싶은 곳? 의문이 풀리는 곳?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곳?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미들컨트리공공도서관 (Middle Country Public Library)

은 이러한 꿈이 송이송이 열리는 곳이다. 아기,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주부, 사업가 등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 도서관을 찾아와서 무언가를 느끼고 발견하고 만든다. 생애 초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도서관을 즐겨 찾는다. 부모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이, 아기를 낳고 육아정보를 찾는 주부, 먼 나라 또는 멀리 떨어진 주(州)에서 이사를 온 사람들, 학교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초등학생, 나름대로의 문화를

추구하는 청소년, 진학을 모색하는 고등학생,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 고급정보가 필요한



▲ 도서관 입구



▲ 도서관 외관



◀ 도서관 로비

전문가, 두 번째 인생을 유쾌하게 보내고자 하는 노인 등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 도서관에서 안식과 해답을 구한다. 지역주민 모두가 사랑하는 이 도서관은 그야말로 '지역의 사랑방' 이자 '대중의 대학'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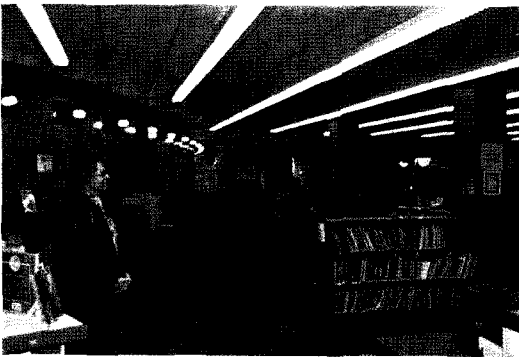
### 가족장소도서관(Family Place Library)의 국가 모델을 찾아서

필자는 2010년 12월 이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이 도서관은 센터리치(Centereach)에 있는 본관과 셸던(Selden)에 있는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자는 센터리치 본관을 방문하였다. 이 도서관이 운영하는 가족장소도서관 프로그램이 미국 전체에서 국가적 모델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가족장소도서관 프로그램은 영·유아와 그 부모를 위한 것이다. 미들컨트리공공도서관에서 1979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11년 3월 현재 미국 22개주 3백여 개

의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작은 마을의 도서관에서 발아된 씨앗이 미국 전역에서 동부 뉴욕주로부터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공도서관에서 아름답리나무로 자라고 있다.

가족장소도서관은 종전의 어린이서비스 개념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1~5세의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도서관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가족장소도서관 프로그램의 중심 요소는 '부모·어린이 워크숍'이다. 이것은 어린이사서가 주도하여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제공하는 5주간 프로그램이다. 어린 아이들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장난감과 책들을 가지고 놀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이러한 '가족장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노는 것을 관찰하면서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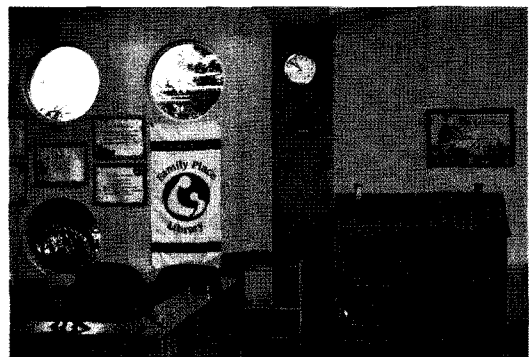


▲ 가족장소도서관 공간

게 다가가 대화를 나눈다. 전문가로는 유아교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심리학자, 교사, 경찰 등으로 다양하다. 부모는 전문가로부터 자녀에 대한 발육과 영양, 동작, 인지, 읽고 쓰는 능력, 안전 등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여기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서 '첫 번째 교사'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체 현상과 같은 영·유아기 장애가 발견되면, 적절한 서비스기관으로 안내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족장소도서관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로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장서, 어린이실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특별 공간 '가족장소', 외부 기관들과의 협력관계, 지역사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도서관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웃리치 서비스, 연령별 인지발달 프로그램 등이 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어린이사서가 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도서관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발견의 기쁨을 느낀다.

도서관이 영·유아부터 환영하고 따뜻하게 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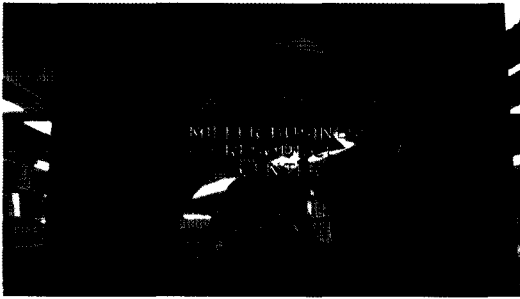


▲ 가족장소도서관 공간

주고 영·유아의 부모에게 휴식과 정보를 주며 각종 전문가를 연결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러한 혁신적 사고는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서비스의 블루오션이 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검증과 평가를 거쳐 국가적 모델이 되어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미국 여러 지역의 도서관장과 어린이사서, 각종 전문가들은 가족장소도서관이 어린이의 리터러시 개발과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전 미국의 가족장소도서관을 아우르고 지원하는 웹사이트, 'Family Place Libraries(<http://www.familyplacelibraries.org/index.html>)'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성공 사례가 제공되고 있다.

### 사업가·실직자 모두를 지원하는 도서관

미들컨트리공공도서관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실로 다양한 계층을 지원한다. 그 중에는 비즈니스 정보를 구하는 사업가들도 포함된다. 도서관의 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밀러비즈니스자원센터



▲ 밀러비즈니스자원센터 로고

(Miller Business Resource Center)는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사업가들에게 양질의 비즈니스 정보를 지원하고 또한 실직자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밀러비즈니스자원센터는 기업과 비영리조직,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 자원센터이자 정보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다.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이 센터는 비즈니스 공동체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리터러시를 진작하고 고용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센터는 미들컨트리공공도서관과 미들컨트리도서관재단, 지역사회의 법인, 상공회의소, 정부

재단 등 다양한 조직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운영된다. 밀러비즈니스자원센터는 비즈니스와 재정, 법률, 성인 리터러시, 경력개발 정보 등을 포함하는 장서,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BIZLINK), 컴퓨터, 독서공간, 회의실, 컨퍼런스실, 비즈니스 사서 업무 데스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밀러비즈니스자원센터는 다양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정보 개론', '당신의 사업을 키우기 위한 마케팅 전략', '기업을 위한 소셜 네트워킹' 등 광범위한 주제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한다. 또한 '도서관 비즈니스 커넥션(Library Business Connection)' 이라는 아침모임을 통하여 지역상인들에게 정보교환 및 발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회를 일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매년 봄에는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지역 내 각종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체, 기업을 위한 '무역박람회(Strictly Business Trade Show)' 를 개최하고, 가을에는 롱아일랜드의 여성 중에서 사업가, 예술가, 비영리조직 종사자 등을 위한 '여성 엑스포(Women's Expo)' 를 개최한다. 이러한 센터를 통하



▲ 밀러비즈니스자원센터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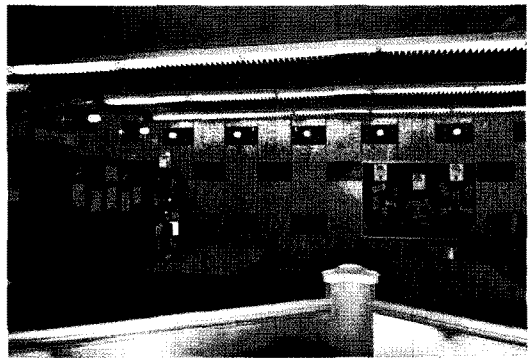
▲ 밀러비즈니스자원센터 내부

여 미들컨트리공공도서관은 지역경제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사람들이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리터러시로부터 경력개발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도움을 준다.

## 만인을 위한 도서관

영·유아와 비즈니스맨 말고도 이 도서관은 만인을 돌본다. 청소년은 이 도서관의 비교적 새로운 표적 고객층이다. 이 도서관은 청소년자원센터를 포함하여 십대들을 위한 공간들을 도서관 내부에 따로 두고 있다. 도서관은 청소년의 성장 단계와 활동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드라마, 시, 소설, 영화, 공예, 게임, 디자인, 컴퓨터, 요리 등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애니메이션, 환경, 작가, 스포츠 등 다양한 십대 클럽이 조직되어 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청소년의 학업, 대학 진학, 직업 탐색, 재능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한편, 노인들을 위해서도 'WISE(노인과 장년층을 위한 정보의 세계, World of Information for Seniors and the Elderly)' 장서를 특별히 구축하여 제공함은 물론, 회화와 공예, 독서토론, 글쓰기, 사업과 경력개발, 시민권, 이주민을 위한 영어, 리터러시,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서관 모임을 통하여 식사도 하고 댄스도 즐기며 유쾌하게 사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찾고 배우고 베풀고 봉



▲ 청소년 공간

사하며 늙지 않는 '제2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연령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 수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고객세분화 마케팅 전략으로 기능하며, 사람들에게 발견과 소통의 기쁨을 준다.

## 도서관과 지역사회를 가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샌드라 파인버그 관장

이러한 모든 도서관 풍경 속에는 이 도서관을 수십 년 동안 가꾸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도서관을 국가적 모델로까지 이끌어 올린 샌드라 파인버그(Sandra Feinberg) 관장의 열정과 노력이 깃들어 있다. 그녀는 1971년에 어린이사서로서 이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서관의 전통적 어린이서비스에서 영·유아와 그 부모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일 년 간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정보를 구한 끝에 가족장소도서관의 개념을 창안하였다. 전통적 어린이서비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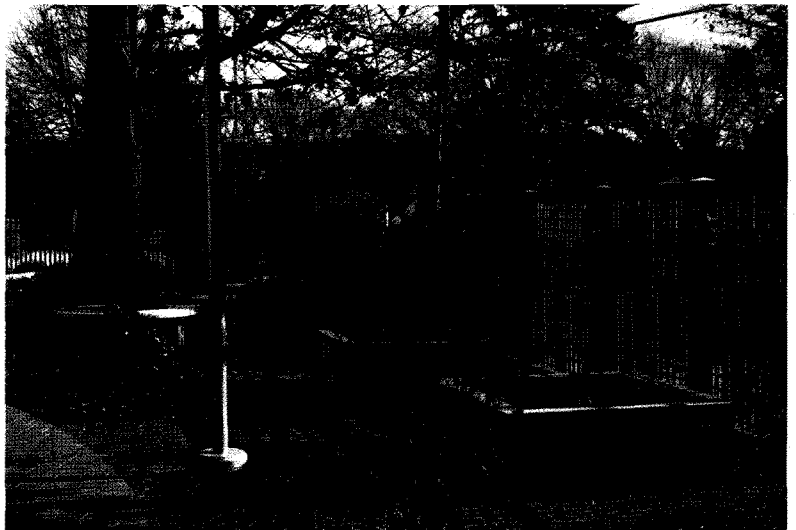


▶ 샌드라 파인버그 관장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그녀의 도전 뒤에는 도서관 마케팅을 생각하는 혁신적인 관장이 있었다. 그 뒤 수십 년 간 샌드라 파인버그는 사서로서 또한 관장으로서 도서관과 사서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다. 그녀가 있었기에 딱히 시내(downtown)라고 할 만한 곳이 없는 작은 마을 센터리치의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남녀노소 각자의 삶과 일에서 매우 소중한 곳으로 다가서 있다. 나아가 미국 전역의 많은 도서관들이 국가적 모델인 이 도서관을 벤치마킹

하며, 이곳에서 수십 명의 사서와 직원이 활력 넘치게 일을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필자와 만난 그녀는 “사서들은 ‘상자(도서관) 밖에서’ 생각하고 의사소통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파인버그 관장은 상자 안은 물론 상자 밖에서도 활동하며 상자를 계속 가꾸고 키웠다. 파인버그 관장의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 덕분에 미들컨트리공공도서관은 자신의 가치와 공간을 지키며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sup>10)</sup>

미들컨트리공공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mcpl.lib.ny.us/index.htm>



▶ 도서관 외부의 자연관찰 공간